



KWC 2019 Spanish Wine

스페인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에 꾸준히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는 와인생산국 중 하나다. KWC 2019에는 총 61종의 와인을 출품했다. 세계 TOP 3에 드는 와인생산대국인 만큼 출품 와인들은 매년 다채롭다. 스페인 와인은 스타일도 다양할뿐더러 와인의 질도 일정 수준을 보장하며 부담 없는 가격대가 많아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KWC에서 수상한 와인이라면 더욱 믿고 마실만한 와인일 테다. KWC 2019에서 수상한 와인들을 지역별로 만나보자. 글: 강은영, 조은지 사진: Wikipedia, Bobega sommos

다양한 산지의 와인들

해마다 KWC에서 수상하는 스페인 와인들의 출생지를 보는 재미도 크다. 올해는 레드 와인 명산지인 리오하, 리베라 델 두에로, 프리오랏 그리고 까바의 고향 페네데스를 비롯 까탈루냐, 까스띠야 라 만차, 발렌시아, 무르시아 지방의 여러 세부 산지의 와인들이 수상을 했다.

다채로운 스타일의 와인

스페인의 여러 산지에서 와인이 출품됐던 만큼 와인 스타일도 한층 다채로워졌다. 특히 스페인 중남부 지방에서 모나스트렐을 블렌딩한 와인이 눈에 띄었고, 소문타노의 게뷔르츠트라미너, 리베라 델 후카르의 보발 등 새로운 와인들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레드 와인에 대한 찬사

KWC 2019에서 많은 심사위원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와인으로 스페인 레드 와인을 꼽았다. 와인이 갖추어야 할 모든 부분에서 탁월했다는 평이 있었고, 앞으로도 스페인 리오하 지역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을 것이라 기대도 나왔다.

Catalunya



까탈루냐는 피레네 산맥 남쪽 스페인의 동북부에 입지한다. 일찍이 지중해를 통해 무역으로 부를 축적해온 곳이며 까탈란 제국의 잔영이 깊이 배어있어 스페인어와 지방어인 까탈란을 구사하는 자치구이다. 중심도시는 바르셀로나.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를 보인다. 까탈루냐에 있는 대표 산지로는 프리오랏 DOC와 스페인 스파클링 와인 까바의 산지인 페네데스 DO가 있다. 그 외 엠포르다(Emporda) DO와 꼬스테르 델 세그레(Costers del Segre) DO도 있다. 엠포르다는 역사적으로 로제 와인으로 유명세를 얻었으나 실제 생산량은 레드가 60%를 차지한다. 재배가 허용되는 화이트 품종에는 가르나차 블랑카, 마카베오, 무스캣, 샤르도네, 게뷔르츠트라미너, 말바지아, 소비뇽 블랑 등이 있으며, 레드에는 가리냥, 가르나차, 까베르네 소비뇽, 까베르네 프랑, 메를로, 템쁘라니요, 시라 등이 있다. 꼬스테르 델 세그레 DO 역시 스페인 토착 품종과 국제 품종이 공존한다.

Cerroles Celler 세르볼레스 셀라

와인 그룹 카스텔 델레메에 속해 있는 와이너리다. 스페인 최상급 와이너리들의 협회인 그란데 파고스 에스파냐(Grandes Pagos de España)의 일원이기도 하다. 1997년 토마스 쿠지네(Tomàs Cusiné)가 까탈루냐 지방의 '첫 산악지대 포도재배 프로젝트'로 꼬스테르 델 세그레(Costers del Segre) DO 지역에 설립했다. 그는 세르볼레스로 질 높은 싱글 에스테이트 와인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모던한 스타일의 스페인 와인을 선보인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Cerroles Blanc
- Gold Cerroles Garnatxa
- Silver Cerroles
- Bronze Cerroles Colors Blanc

Espelt 에스펠트

에스펠트 패밀리는 까탈루냐 지방의 엠포르다(Emporda) 지역에서 1800년대 초부터 포도와 올리브를 재배했다. 2000년 대 초에는 와이너리를 설립하고 가문의 이름을 담은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자연의 균형과 생태계를 존중해야 최고의 와인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곧 이들의 철학이다. 그래서 가르나차, 가리냥, 모나스트렐, 시라, 마카베오, 뤼스가펠 등의 품종을 유기농으로 재배하며, 신선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화이트부터 스피이시한 레드까지 지중해의 풍미를 담은 와인을 선보인다. 수입사 KS와인

-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Espelt Coma Bruna Bronze Espelt Sol I Vent

Rene Barbier 르네 바르비에

1870년 필록세라로 인해 프랑스 전역의 포도밭이 초토화 되었다. 이에 바르비에 일가는 필록세라의 영향을 받지 않은 스페인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와이너리를 개척했다. 스페인 까탈루냐에 정착한 후 레옹 바르비에(Leon Barbier)는 스페인 토착 품종과 프랑스 양조기법으로 와인을 만들었다. 이후 그의 아들인 르네 바르비에에는 본인 이름을 전면에 내세워 아버지가 만들어낸 뛰어난 품질의 와인을 전 세계에 선보이며 와이너리의 성장을 이끌었다. 수입사 에노테카코리아

-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Rene Barbier Brut Reserva



La Rioja

에브로 강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스페인 최상급 DOC 지역의 하나이다. 1991년 DOC로 승격되면서 스페인 최초의 DOC 지역이 되었다. 리오하는 세부적으로 알타(Alta), 알라베자(Alavesa), 바자(Baja)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뉜다. 리오하 남동쪽의 바자가 무덥고 건조한 환경에서 좀 더 대중적인 와인을 만든다면 알타와 알라베자는 질 좋은 와인으로 명성이 나 있는 곳이다. 특히 리오하 서편의 알타에서는 구조감 좋고 산도가 뛰어난 와인들이 나고, 장기 숙성에 적합한 레드 와인을 얻을 수 있다. 리오하에서는 레드 와인이 70~80%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화이트이다. 그 중에서도 펠쁘라니요가 대표적인 품종이다. 이 외 레드 품종에는 가르나차, 그라씨야노 등이 있으며, 화이트로는 비우라, 말바지아, 가르나차 블랑카 등이 재배된다.

Beronia 베로니아

1973년 설립된 베로니아는 프리미엄 와인을 주력으로 생산했다. 1982년에는 스페인 세리 그룹인 곤잘레스 비아스(Gonzalez Byass)의 투자를 받으며 좀 더 다양한 레인지의 와인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리오하 대표 와이너리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현재 베로니아는 와인 트렌드에 발맞춰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면서도 리오하의 지역 정체성을 간직한 와인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상 와인리스트

Gold Beronia Reserva

Bodegas Muriel 보데가스 무리엘

1926년 호세 무루아(José Murua)가 리오하의 엘시예고(Elciego)에 와이너리를 설립하게 되면서 무리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무리엘 그룹에는 트렌디하고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레알 꼬뮌나, 리오하 지역의 양질의 와인을 만날 수 있는 비나 에기아가 속해있다. 또 한 한국에서 만나보기 힘든 알바리노 품종으로 와인을 만드는 빠소 씨에이로 등 스페인 내 6개의 서로 다른 와이너리에서 고품질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Gold Bodegas Muriel Pazo Cilleiro Albarino

Bodeguera de Valenciso

보데구에라 데 발렌시소

1998년 발렌틴(Valentin)과 엔씨소(Enciso)가 설립했고 이들의 이름을 합쳐 '발렌시소로 와이너리' 이름을 짓게 되었다. 발렌시소는 'One Bodegas, One Wine, One Brand'라는 와이너리 모토를 지켜 나가며, 모든 와인은 오가닉,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으로 만들고 있다. 처음에는 연간 24,000병에 그쳤으나 현재 100,000병으로 증가했다. 해외에서 펠쁘라니요를 잘 만드는 와이너리라는 평가를 받으며, 리오하의 스타 와이너리로 인정받고 있다.

수입사 LB

수상 와인리스트

Gold Valenciso Reserva

El Coto de Rioja

엘 꼬또 드 리오하

1970년 스페인의 산업은행인 뱅크유니온(Bankunion)의 투자로 리오하 지역에 설립되었다. 이후 에두아르도 산토스 루이스(Eduardo Santos Ruiz)가 인수하게 되면서 엘 꼬또는 리오하 지역을 대표하는 와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1997년에는 스페인 와이너리 그룹 중 최초로 주식 거래소에 상장되기도 하였다. 엘 꼬또는 약 3년마다 새로운 오크통으로 교체하는 등 매년 아낌없는 투자로 단시간 안에 와인의 질을 향상시켰다. 수입사 LB

수상 와인리스트

Gold Coto de Imaz Gran Reserva

La Rioja Alta S.A. 라 리오하 알타 S.A.

라 리오하 알타는 1890년에 와인 생산자 5인이 모여 설립한 와이너리이다. 여전히 설립자 5인의 후손들이 전통을 중시하며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와이너리는 19세기 말부터 이어진 리오하 전통 방식에 따라 프렌치 오크 대신 아메리칸 오크만을 사용하여 숙성한다. 라 리오하 알타의 와인은 파커 포인트 최저 92점, 최대 97점으로 모두 90점 이상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라 리오하 알타는 스페인을 넘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와이너리로 인정받고 있다.

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수상 와인리스트

Gold La Rioja Alta Vina Arana Gran Reserva

Silver La Rioja Alta Pazo de Seoane Rosal

Ribera del Duero

마드리드에서 북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곳, 바야돌리드(Valladolid)와 아란다(Aranda) 사이에 리베라 델 두에로가 있다. 스페인의 전설적인 와이너리 베가 시실리아가 자리한 산지이기도 하다. 약 12,000ha에 달하는 리베라 델 두에로는 1982년 DO의 지위를 얻었고, 오래전부터 DOC로 업그레이드되는 것과 관련 논의가 있어 왔다. 이 지역은 대륙의 영향을 받는 지중해성 기후로 일교차가 크고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은 몹시 춥다. 다만 두에로 강과 계곡이 있어 찬 바람을 막아주고 극심한 기후를 약간 누그러뜨려준다. 이곳에서는 레드 와인만이 생산되고 화이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된 품종은 띠따 델 빠이스(Tinta del Pais)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펠쁘라니요다.



Alejandro Fernandez Tinto Pesquera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 띠또 빠스케라

빠스케라를 설립한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는 펠쁘라니요의 왕이라고 불린다. 그는 1975년 리베라 델 두에로의 빠스케라 마을에 와이너리를 세우며 그해 스페인 최초로 펠쁘라니요 100% 와인을 양조했다. 그룹 빠스케라를 완성한 지금도 오직 펠쁘라니요에만 집중한다. 1982년 로퍼트 파커는 세계 5대 레드 와인으로 알레한드로의 와인을 선정했고,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는 2013년 <Fine Magazine>에서 선정한 Top 20 와인메이커로 이름을 올렸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Best Spain Red Alenza Gran Reserva

Bronze Alejandro Fernandez Tinto Pesquera El Vinculo Crianza



Valencia & Murcia

스페인 반도의 중동부, 지중해 연안에 면해 있는 지역이다. 발렌시아가 좀 더 북쪽에 위치하며, 바로 그 아래 무르시아가 이웃해있다. 전체적으로 무더운 기후를 보인다. 무르시아에서 잘 알려진 와인산지로는 북동부의 예끌라(Yecla) DO와 그 서남쪽에 있는 후미야(Jumilla) DO가 있다. 질 좋고 가격대도 좋은 와인들로 최근 국제 시장에서 각광받는 지역들로 이 지역 토착 품종인 모나스트렐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발렌시아 지방에 있는 알리칸테(Alicante) DO에서도 모나스트렐로를 비롯한 레드 와인 생산이 지배적이다.

Telmo Rodriguez 텔모 로드리게즈

텔모 로드리게즈는 스페인 전역에 걸쳐 새로운 지역과 포도밭을 탐색하고 그 지역의 토착품종으로 와인을 양조하는 와인메이커이다. 또한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을 고수한다. 현재 그는 토로, 루에다, 발데오라스, 말라가, 알리칸테, 시갈레스를 비롯해 9개 지역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이번 KWC 2019에서 수상한 와인은 알리칸테 지역의 알무베드레(Almuvedre)이다. 이 외에도 국내 수입되는 와인으로 시에라 데 말라가 지역의 마운틴 블랑코(Mountain Blanco)와 토로 지역의 가고(Gago)가 있다. 수입사 국순당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Telmo Rodriguez Al-muvedre

Barahonda 바라온다

1925년, 안토니오 칸델라 가르시아(Antonio Candela Garcia)가 예끌라 지역에 설립한 와이너리다. 90년대에 이르러 선조들의 전통적 양조철학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양조 설비를 도입해 타닝포인트를 맞춘다. 한편 이 지역의 또 다른 와이너리인 보데가스 안토니오 칸델라 에 히호스(Bodegas Antonio Candela e Hijos S.L.)를 인수했다. 바라온다는 특히 이 지역 토착품종인 모나스트렐로 빛은 와인으로 유명인데, 로버트 파커는 '모나스트렐의 교과서와도 같은 위대한 와이너리'라고 평하기도 했다. 수입사 문도비노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Barahonda Campo Arriba

Bodegas La Purisima 보데가스 라 푸리시마

1946년 예끌라 지역의 여러 포도 재배자들이 최고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고자 하는 뜻을 모아 협동조합의 형태로 설립한 와이너리다. 1975년에는 예끌라 지역이 스페인 DO 등급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후로도 현재까지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500여 명의 회원들을 거느린 보데가스 라 푸리시마는 예끌라 지역 와인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 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30여 개의 나라에 진출하여 수출 시장의 활로를 넓혀가고 있다. 수입사 유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La Purisima Consentido Monastrell Barrica
Silver La Purisima Trapio

Bodegas Luzon 보데가스 루손

루손의 설립자는 필리핀 루손이라는 섬의 스페인 군의관이였다. 스페인으로 돌아온 그는 1916년, 오랫동안 머물렀던 루손을 기억하기 위해 와이너리 이름을 루손이라 지었다. 루손은 후미야 지역의 토착 품종인 모나스트렐 와인을 생산하면서 전통과 모던을 결합한 우수한 품질로 이름을 알렸다. 이들이 소유한 90ha의 포도밭은 650m 고지대에 있다. 지중해의 영향을 받는 기후와 석회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떼루아로 훌륭한 모나스트렐을 생산하기엔 최적의 곳이다. 수입사 롯데주류, 동원와인플러스

수상 와인리스트

Gold Luzon Coleccion Garnacha (동원)
Silver Altos de Luzon (미수입)
Silver Luzon Las Hermanas Crianza (롯데)
Bronze Luzon Las Hermanas Seleccion Especial (롯데)

Dominio de la Vega 도미니오 데 라 베가

1982년에 설립된 도미니오 데 라 베가는 다양한 레인지의 까바와 스위트 와인, 스틸 와인을 생산한다. 처음에는 스페인 토착 품종인 보발을 경작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피노 누아를 재배하여 까바를 만들었다. 그 후 자재를 품종을 블렌딩하여 다양한 스타일의 까바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도미니오 데 라 베가는 생산량을 제한하여 좋은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산미와 아로마가 풍부한 스파클링 와인부터 달달한 스위트 와인까지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만들고 있다. 수입사 BK트레이딩

수상 와인리스트

Gold Dominio de la Vega Idilicum Cava Brut

Priorat

스페인 동북부 바르셀로나에서 해안을 따라 서남향으로 내려오면 따라고나에 이르고 이 도시의 내륙 쪽에 DOC를 받고 있는 프리오랏이 있다. 이 지역은 경사가 심한 언덕에 포도밭이 테라스의 형식으로 발달해 있다. 경작 면적이 고작 1,800ha에 불과하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건조한 기후 탓에 생산량이 적다. 토양은 자갈과 슬레이트로 구성된다. 레드와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가르나차 띠파, 까리네냐, 까베르네 소비뇽, 가르나차 블랑카, 메를로, 시라 등이 재배된다.

Mas Doix 마스 도이쉬

프리오랏의 포볼레다(Poboleda) 마을에 자리한 가족 경영 와이너리로 5대째 가문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주요 품종은 까리냐과 가르나차이며, 대부분 60~100년이 넘는 올드 바인으로 와인을 생산한다. 마스 도이쉬는 스페인 최상급 와이너리 협회인 그란데스 파고스 데 에스파냐(Grandes Pagos de Espana)의 멤버이기도 하다. 수입사 샤프트레이딩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Mas Doix Salanques



Ribera del Jucar

스페인 중부, 이 나라 와인의 절반가량이 나는 방대한 지역 카스티야 라 만차(Castilla La Mancha) 지방에 쿠엔카(Cuenca)라는 도시가 있다. 이 도시의 와인 협동조합 그룹과 개별 와이너리들이 퀄리티 와인 생산을 위해 힘을 합쳐 2003년에 신설한 DO 지역이 리베라 델 후카르이다. 이 지역 포도밭의 평균 고도는 750m에 이르고 석회석과 진흙, 작은 자갈이 섞인 토양은 포도 생산에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레드 와인만 생산되며, 주요 품종에는 템쁘라니요,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시라, 보발 등이 있다.

Bodegas Albero 보데가스 알베로

가족 소유의 와인 그룹으로 양조 철학이 아주 뚜렷하다. 먼저 스페인의 아직 잘 알려지지 않는 지역의 토착 품종에 초점을 맞춘다. 포도는 유기농이나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으로 재배한다. 가계에서 난 뒤어난 퀄리티의 모던 스타일 와인이 이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이다. 보데가 알베로가 자리를 잡은 곳은 중부 라만차 지방에 있는 쿠엔카(Cuenca) 지역. 쿠엔카 내에 있는 리베라 델 후카르(Ribera del Jucar) DO 외에 발렌시아 지방의 예끌라 DO의 와인도 생산한다. 수입사 KS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Bodegas Albero Calanta
Silver Bodegas Albero Isabella Bobal



Penedes

바르셀로나에서 서남부 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페네데스가 자리 잡고 있다. 와인산지의 면적은 약 22,500ha으로 페네데스 DO는 페루아의 특성이 다른 3개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즉 가장 따뜻한 지역인 페네데스 바호(Bajo), 비교적 온난한 편인 페네데스 메디오(Medio), 매우 신선한 기후대를 보이는 페네데스 수페리오르(Superior)이다. 페네데스 산지는 스페인 스파클링 와인 까바의 중심지이며, 화이트 와인이 우세한 지역이다. 주요 화이트 품종으로는 까바 품종이기도 한 빠레야다, 마카베오, 자렐로 등이 있으며, 샤르도네의 재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Giro Ribot 지로 리보

지로는 16세기 이래 페네데스 지역의 양조 문화를 이끌어 온 유서 깊은 가문이다. 시작은 브랜드 양조장이었지만 이후 본격적으로 와인을 양조하는 와이너리로 탈바꿈을 했다. 1989년에는 세계적인 기업인 레미마틴 그룹과 합작하여 까바 전문 와이너리로 또 한 번 변신을 꾀하게 된다. 이는 삼페인 하우스의 노하우를 배우는 계기이기도 했다. 2000년 이후 와이너리는 다시 100% 지로 가문의 소유가 되었고, 지로 리보는 스페인 까바를 대표하는 생산자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수입사 KS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Giro Ribot Paul Cheneau Cava Brut Reserva Millesime

Bodegas Pinord 보데가스 피놀드

'북쪽의 소나무(Pine of North)'라는 의미를 가진 보데가스 피놀드는 빌라프란카 델 페네데스(Vilafranca del Penedes)에 자리 잡고 있다. 1942년 조셉 마리아 테타스(Joseph Maria Thetas)에 의해 와이너리의 모습을 갖추었다. 보데가스 피놀드는 유기농법으로 포도를 경작하여 좋은 품질의 까바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유로리프(Euro-leaf), 디미터(Demeter) 등에서 유기농 및 바이오다이내믹 인증을 받았다. 또한 오랜 세대에 걸쳐 전통적인 양조 방식을 계승하고 지속적으로 포도밭을 늘려가고 있다. 수입사 WS통상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Bodegas Pinord Red Bat

Conde de Caralt 콘데 데 카랄

카랄 백작 가문의 호세 마리아 데 카랄 보렐(Jose Maria de Caralt Borrell)이 설립한 와이너리이다. 1964년에 첫 빈티지를 생산했다.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와인메이커 가브리엘 서버비올라(Gavriel Suberviola)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1984년 스페인 내 No.1 까바 브랜드 프레사넷(Freixenet)에 인수되었고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수입사 에노테카코리아

수상 와인리스트 Gold Conde de Caralt Brut **Silver** Conde de Caralt Rosado

GSD Wines

GSD 와인즈

젊은 부부, 산토스(Santos)와 그의 아내 로아나(Loana)는 2011년 GSD 와인즈를 설립했다. GSD 와인즈는 스페인의 남동쪽에 위치한 후미야 지역에 위치해 있다. 토착품종인 모나스트렐을 베이스로 와인을 만들고 있으며, 고품질 와인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입사 BK트레이딩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GSD Wines Promesa

Roger Goulart

로저 구라트

1882년 설립된 로저 구라트는 시작부터 프리미엄 까바만을 출시한 까바의 선구자이다. 보통 스파클링 와인들이 년빈티지로 나오는 것과 달리 로저 구라트는 빈티지 까바를 추구하고 장기 숙성한 까바를 출시한다. 특히 일본 TV쇼의 비교 테이스팅에서 더 많은 패널들이 돔 페리뇽 로제보다 로저 구라트의 로제를 선호하는 모습이 방영되면서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 2년 전, 기존 로제와는 차별화된 새롭고 트렌디한 코랄 로제를 출시하여 또 한 번 히트를 쳤다.

수입사 와이넬

수상 와인리스트

Gold Roger Goulart Coral Rose

Silver Roger Goulart Brut Rose

Silver Roger Goulart Gran Cuvee Josep Valls

Torres 토레스

17세기부터 이어져오는 가족 경영 와이너리이다. 토레스는 1979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던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프랑스 보르도의 그랑 크뤼 와인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2006년 <Wine Enthusiast>에서 '유럽 베스트 와이너리'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워밍에 큰 관심을 가지며 포도 수확 시 버려지는 잔가지들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성해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UN의 공식적인 에이전사인 RTCC로부터 '환경에 책임감을 보이는 선구자'로 불리고 있다. 수입사 신동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Torres Celeste

Somontano

스페인 북부 아라곤 지방에 있는 와인 산지이다. '산 아래'를 뜻하는 소몬타노라는 이름은 입지 조건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다. 실제 소몬타노는 피레네 산맥 발치에서 에브로 강까지 뻗어있다. 기후는 전반적으로 대륙성 기후를 띠지만 거대한 피레네 산맥이 이 지역 날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높은 고도에 자리 잡은 포도밭은 무더운 낮과 차가운 밤사이 큰 일교차로 인해 당도와 산도의 밸런스가 좋은 과실을 얻는다. 소몬타노는 1984년 DO를 얻었고, 이후로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토착품종과 함께 국제 품종도 많이 재배하는 편이다. 레드에는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시라, 가르나차 등으로 만든 와인을 많이 볼 수 있다. 반면 화이트는 게뷔르츠트라미너, 마카베오, 샤르도네가 주요하게 재배된다. 가르나차로 만든 짙은 색의 로제 와인도 유명하다.



Bodega Sommos 보데가 소모스

보데가 소모스는 소몬타노 바르바스트로(Barbaastro)에 위치해 있다. 소몬타노 지역을 대표하는 와이너리이며, 특히 아름다운 와이너리 건물로도 유명하다. 와이너리 로고 또한 모던한 건축물의 형상을 본 따 만들었다. 소모스는 기존의 토착 품종보다는 다양한 국제 품종의 와인 생산에 주력하며 현대적이며 혁신적인 와이너리로 성장하고 있다. 수입사 BK트레이딩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Sommos Gewurztraminer

Silver Sommos Reserva